

“譯經 인력·재원 없어 역경”

〈역경〉

〈逆境〉

동국역경원, 대강백 초청 설명...활로 모색

2001년 9월 6일 '법보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가 열린 서울 장충체육관은 1만여 대중으로 가득 찼다. 불법 전래 1600여년, <고려대장경> 완성 700년 만에 우리말로 다시 태어난 <한글대장경>에 불자들은 환희심으로 가득 찼다. 설립 37년 인고 끝에 318책을 발간한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에는 찬사가 잇따랐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역경사업은 도제양성, 포교와 함께 조계종 3대사업이다. 하지만 종단 내 역경원 위상은 초라하다. <한글대장경>은 오역과, 누락 등 불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대중적이지 못한 분류법에 연구자들마저 외면한다.

이런 가운데 동국역경원은 10월 9일, 롯데호텔에서 '전국 대강백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종단적 관심과 지원을 긴급호소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강백은 10여명. 역경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해 종진 스님(해인사 율주), 통광 스님(월불사 회주), 헤거 스님(금강선원 원장),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해남 스님(통도사 율주), 정원 스님(능엄학원 학장), 조격 스님(중앙종회의원), 묘연 스님(봉림사 승가대학장), 해원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이 참석했다.

#오류·누락부터 바로 잡아

종진 스님은 <▲고려대장경>과 다른 편제 ▲오역·누락 ▲흔재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스님은 <한글대장경>이 <고려대장경>과 편제도 다르고 내용도 부실하다. <신수대장경>의 오역과 누락을 답습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 말했다. 문체의 혼용에 대해서는 '한 개송이 37가지 문체인 경우도 있다. 지역과 의역이 섞여있다'고 설명했다. 해남 스님은 "직역하면 한문이 낫다"고, 의역하면 한문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중국에서 역경할 때는 번역자와 필력자, 율문자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 공동번역을 하더라도 율문과 감수는 반드시 거쳐야 할



10월 9일 동국역경원 주최 전국대강백 초청 설명회에 참석한 대강백들. 사진 왼쪽부터 통광 스님(월불사 회주)·종진 스님(해인사 율주)·월운 스님(역경원장)·헤거 스님(금강선원원장). 사진=박재원 기자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광 스님은 "번역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전산화를 우선하고,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정작업 하면 용이할 것"이라 제안했다.

#대중에 부합해야 좋은 번역

종범 스님은 "글만 새기는 것이 번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윤허 스님의 <능엄경>은 의미전달에 충실하고, 탄허 스님 번역들은 한문을 어떻게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사례"라고 소개하며, 단순 한자 번역이 아닌 대중에 부합하고, 호응된 번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 스님도 "대만 불광사를 찾았을 때 법회를 마친 성운 스님에게 스님의 모친이 '어머니가 아들 말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알아들었겠느냐'며 꾸지람하는 것을 들었다"며, 대중에 부합된 번역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광 스님은 "<한글대장경> 발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중요경전을 선택해 대중적으로 재가공해 유포하자"고 말했다. 정원

스님은 "<한글대장경> 읽기 가이드를 제공해 일반 불자들이 <한글대장경>을 쉽게 읽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 제안했다.

#완간 후 피드백 결여

종범 스님도 역경의 ▲시대성 ▲필요성 ▲대중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2001년 회향 후, 대중의 반응을 살폈는지 묻고 싶다"며, "일반 불자와 전문가 중 누가 읽고 있는지, 어떤 결건이 주로 읽히는지를 살펴 이념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거 스님은 "민주협 한글교전번역원은 고액의 회원등록을 해야 납권 구입이 가능하다"며, "번역사도 양성하며 독자운영 하는 민주를 벤치마킹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스님은 '1사찰 대장경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역경사 양성 중요

헤거 스님은 역경사 양성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스님은 20여년 전부터 금강선원 신도들에게 한자교육을 강

화해 성공한 사례를 들어, "일반인을 역경사로 양성하자"고 촉구했다. 헤거 스님은 "역경사의 신분과 재정 보장이 역경사 양성에 중요하다"며, "불교 대학대학원 등 교육기관을 활용해 역경관련 학위를 주자"는 제안도 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해원 스님도 <한글불교전서> 번역 사업 진행의 어려움 등을 들어 역경인력의 확충을 촉구했다.

#종단 관심과 지원 뒤따라야

조격 스님은 역경도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역경에 정진하는 역경도량과 별도로 역경후원사찰을 두자"고 제안했다. 묘연 스님 등은 "역경원 사업을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역경원은 2009년 회향을 목표로 <한글대장경> 전산화와 개역작업을 병행 중이다. 디지털화한 대장경 콘텐츠를 음성 및 점자로도 제공하고, 사지와 사기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번역사업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창간 14주년 특집 48면 발행

A 선지식을 찾아서 지환 스님 12-13면
해군중앙법당 통행사 일요법회 5면
통도사 금강계단의 영기화생 강우방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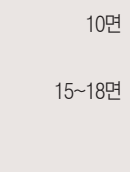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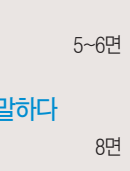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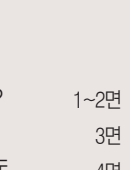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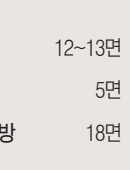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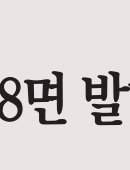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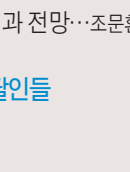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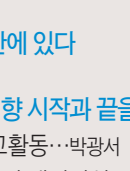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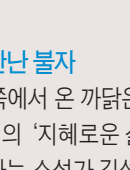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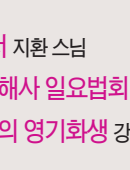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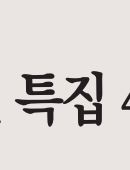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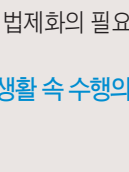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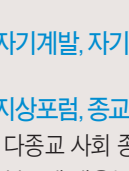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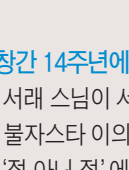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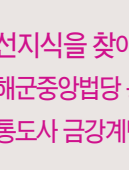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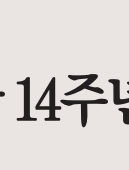
B 창간 14주년에 만난 불자
서래 스님이 서쪽에서 온 까닭은? 1-2면
불자스타 이의정의 '지혜로운 삶' 3면
'절 아닌 절'에 사는 소설가 김성동 4면

자기계발, 자기 안에 있다 5-6면

지상포럼, 종교편향 시작과 끝을 말하다

다종교 사회 종교활동...박광서 8면
불교계 대응논리와 내적자성...김광석 9면
법제화의 필요성과 전망...조문환 10면

생활 속 수행의 달인들 15-18면



社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종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해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대표 (02)2004-8200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부서에 발송중>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법보시 후원금에 따라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주요부서에 본지를 발송중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토해양부 주요 부서에 신문을 추가로 발송합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강명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순 황산화 원액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물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원형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소수량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육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불기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포살 및 결계에 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 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들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일: 불기 2552(2008)년 11월 3일(월, 음력 10.6) ~ 11월 12일(수, 음력 10.15)
 -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할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시행령 별첨 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할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계 일 전 10일부터 결계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 서식3)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계 일 전 10일부터 결계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2. 포살
 -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면 유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할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포살참여 예외
 - 가. 승남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동시충족)
 - 나. 결계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3. 결계신고
 -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 라. 결계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 나·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 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계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4. 포살 시행일: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할(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5.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 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6. 결계특례 등 제외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포살 및 결계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7.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시행령 별첨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인쇄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02)2011-1710)

불기 2552(2008)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